

[하나님 아버지 - 선택]

2020.05.10

엡 1:3-6

정성록 목사님

엡 1:3-6

-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
-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
-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
-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

- ☞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.
- ☞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.
- ☞ 하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복이다. 하나님을 의식하고,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각적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.
- ☞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,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, 감각하느냐이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,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, 감각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.
- ☞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,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, 신령한 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를 바울이 말씀해 주고자 한다.
- ☞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?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살 수 있는가?
- ☞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?
- ☞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.
- ☞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아서 안된다.
- ☞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.
- ☞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주셨다.
- ☞ 성경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.
- ☞ 나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.
- ☞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,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.
- ☞ 신앙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.
- ☞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.
- ☞ 사람은 사랑을 나눠줘야 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.
- ☞ 엡 1:4-5
- ☞ 구원 = 십자가, 예수 그리스도,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
- ☞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다.
- ☞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.
- ☞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신 것이다.
- ☞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셨다.
- ☞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.

- ☞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.
- ☞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다.
- ☞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곳이 출 3:6-10 말씀이다.

출 3:6-10

-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
-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
-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,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, 헷 족속, 아모리 족속, 브리스 족속, 히위 족속,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
-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
-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

- ☞ 출 3:8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겠다고 하신다.
- ☞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. 모세가 아니다.
- ☞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.
- ☞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.
- ☞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. 그러므로,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.
- ☞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.
- ☞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,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.

엡 2:8-9

-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
-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

- ☞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.
- ☞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.
- ☞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.
- ☞ 칼빈이 이야기하길,
우리 안에, 모든 인간 안에 종교적인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, 하나님을 찾는데,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다.
- ☞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야 하지만,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.
- ☞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.
- ☞ 인간은 한계를 느끼기 전까지는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,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.
- ☞ 현재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고 있다.
- ☞ 현재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현대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.
- ☞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다.

- ☞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택하셨으며(엡 1:4),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(엡 1:5)이다.
- ☞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으나,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.
- ☞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다.
- ☞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.
- ☞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.
- ☞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필요치 않으시다.
- ☞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도 홀로 영광 받으시며, 기쁘시고, 충만하신 분이시다.
- ☞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치 않으시다.
- ☞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뻐하시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.
- ☞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?
- ☞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취소하시지 않으신다.
- ☞ 우리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기쁘다.
- ☞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기쁘신 분이시다.

시 115:3

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

- ☞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.

시 135:5-6

5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

6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

- ☞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.
- ☞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.
- ☞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.
- ☞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, 완전하신 기쁨을 누리셨다.
- ☞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는가? 요 17:24 말씀을 찾아보자.

요 17:24

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

- ☞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.
- ☞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부터 아들을 사랑하셨다.
- ☞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? 요 5:20 말씀에서 확인해 보자.
- ☞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어라.

요 5:20

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

- ☞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는데, 어떤 복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다.
- ☞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. 이는 요 3:34-35에 말씀하셨다.

요 3:34-35

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
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

- ☞ 신령한 복은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이다.
- ☞ 신령한 복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주셨다.
- ☞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.
- ☞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.
- ☞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.
- ☞ 엡 1:3-4 말씀을 보면, [아버지]라는 말씀이 있다. 여러분은 [아버지]를 생각하면, 어떤 생각이 됩니까?
- ☞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,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.
- ☞ 또한,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,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화를 받는다.
- ☞ 하나님 아버지께 편지를 쓰게 되면,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,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모자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.
- ☞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은 어버이 때문입니다.
- ☞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셨다.
- ☞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전에 [아버지]로 존재하셨다.
- ☞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은,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행하시는 것이다.
- ☞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.
- ☞ 신 32:6을 봅시다.

신 32:6

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

사 63:16

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,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

- ☞ 하나님께서는 한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.
- ☞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귀한 존재이다.
- ☞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. 이것은 요일 4:9-10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.

요일 4:9-10

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
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

- ☞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,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

물이 되심이다.

☞ 우리는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존재이다.

요 14:31

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

☞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.

☞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시다.

☞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.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.

☞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.

☞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롬 8:31-39에 말씀하고 계신다.

롬 8:31-39

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

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

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

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

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

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

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

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

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

☞ 부모님께서 계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,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.

☞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

요점

☞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.

☞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.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.

☞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.

기도 제목

☞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.

☞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하게 하소서.

적용

☞ 부모님이 계신 이천호국원에 다녀오겠다.